



인도여행기

국립보건원 보건간호과 장정마

동남 아세아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많기로 세계에서 블레 가는 나라 인도에 다녀온 소감과 여행답을 듣고 싶다는 여러분들의 청에 먼저 짚사드립니다. 저는 인도 칼카타에서 10개월간의 보건간호학 과정을 마치고 태국 홍콩을 며칠씩 거쳐 미나린에서 3주, 대만에서 3주, 오끼나와에서 일주일, 그리고 일본에서 2주, 약 1년간을 동남 아세아 몇 나라를 보고 지난 6월 25일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 주로 칼카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방학을 이용하여 인도의 남부인 Madras, Bangalore, Mysore에 갔었고 공부마치고 인도의 수도인 New Dheli와 Agra에 갔었습니다. 그럼 일년전 7월로 돌아가 여러분들과 같이 인도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26일 김포공항에서 노모님과 친구들의 환송을 받으며 3시 30분 North West 항공기편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일본 등경에서 하루 묵고 이튿날 B.O.A.C.로 Hong Kong

까지 직행 1시간을 쉬고 끝 목적지인 칼카타에 도착했습니다.

인도의 문순 계절

Dum, Dum, air port에 내리니 우선 내가 기대했던 것 보다는 텁텁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느낄 수가 있었기에 전일만한 낫이라고 자신을 가질 수 있었다.

6월부터 시작되는 문순은 9월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이 비행장안은 특색의 Sari를 입은 인도 Stewardess가 바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뿐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immigration dept.로 몰려 들었다. 세관검열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수십 명의 맨발인 짐꾼들이 물려들어 내 짐을 서로 air line Bus에 옮겨 주겠다고 친절을 베풀다. 국방색 제복을 입은 이를 인도인은 보기에 온순한 인상을 주었다. B.O.A.C. Air line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마침 학교 기숙사 사감선생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인도

인으로서는 피부가 흰분이었으며 네가 한국에서 온 Miss Chang이냐고 물으며 저를 차에 태우고는 어제로인지 가자고 운전수에게 명령한다. Salvation army guest house라고 써여진 붉은 벽돌집 앞에 내려놓는다. 어둠침침한 건물안에서 한 구세군 제복을 입은 영국인이 반가히 맞아주었다. 꼬불꼬불한 물총계로 나를 안내하드니 제일 꼭대기 끝날까지 대리다 주었다. 나무판자로 된 문에 등근 쇠고리가 달린 꽉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옛날 서양식 방문이다. 조그마한 방에 침대가 셋이고 한쪽으로 찬막이를 하고 아프리카 여인이 들어 있었다. 먼저 온 이들 세 사람이 알고 보니 다들 한반 학생들이었었다. 속소가 마음에 들지 않기에 집을 그대로 놀지않은 채 한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우리 여기 10개월간 계속 있을 거 누구요. 그러자 이 친구하는 말이 Y.W.C.A. hotel에서 방이 나는 대로 연락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피곤한 몸을 침상에 의지한채 잠 안오는 하루밤을 지나 새벽이 되니 웬 까마귀떼들이 그리도 울어 대는지 가뜩이나 외로운 나그네 마음을 더 산란하게 만들었다. 답답하여 베란다로 나가보니 육중한 고층건물들이 늘어선 시내를 바라다 볼 수 있었다. 갑자기 아래서 “꺄”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에 아래를 내려다보니 지나가든 인도인들이 용기 좋기 모여 놀고 있다. 무슨일인지 알고 싶었기에 내려가 보니

원숭이가 삼층 치붕에서 떨어져 꾀를 훔치고 죽어 있었다. 이곳 인도에는 어릴가나 원숭이를 볼 수 있는데 보통 다른 야생짐승과 같이 나무열매나 또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란다. 조금 있자니까 100여 마리가 넘는 원숭이떼들이 몰려들더니 모두 앞발을 눈에 대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울고 있다. 그 중 제일 힘이 세게보이는 원숭이가 시체를 들쳐메드니 어�템폰가 사라져 버린다. 그위를 울며 따라가는 원숭이떼들을 병하니 보고있는 나를 누가 옆에서 치는사람이 있기에 돌아다 보니 이란에서 온 친구였다. 아침식사를 하자고 하여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에서는 모두 원숭이떼들로 얘기꽃이 되었다. 그중에 어떤 인도여인이 설명을 하는데 원숭이는 반짝이는 물건을 좋아 한다고한다. 그래서 이 원숭이들은 기회만있으면 보석을 훔쳐다가 원숭이 집에 갑춘다고 하는데 원숭이 집을 습격하면 가끔 보석을 염는 경우도 있다한다.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내리던 것 이 학교에 딱 가려고 집을 나서자 주변 같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집에서 학교까지 약 15분이면 Taxi로 간다. 학교까지 가는중 어찌나 비가 무섭게 쏟아지는지 꽉 떠내려 갈 것만 같았다. 학교에 딱 도착을 하니까 비가 끄떡이며 햅볕이 반짝나는데 거리마다 불이 널쳐 자동차는 거의 절반이 불에 잠기게 되고 어떤곳은

들이 사람의 가슴까지 올라오는 곳도 있었다. 이 때 한듯보는 사람은 틱사꾼들이다. 이 틱사는 우리나라 말로 인력거라는 것으로 사람이 끄는차로 인도에서는 유용하게 이용되는 교통 중에 하나이다. 이들은 물에 잠겨서라도 힘으로 인력거를 풀면 빠르게 이렇게하여 평소 요금의 몇 배를 받는 것이다. 칼카타 시내 하수도 설비가 잘 안된데다가 지역이 낮은곳은 이런 난리를 비울때마다 격둔다고 한다. 이 몬순계절에 칼카타 기온은 75°F에서 85°F로 오르내리며 춥도는 85°F에서 90°F이다. 어찌나 습한지 벽에 걸어 총은 옷을 다시 대비미칠 하면 즉 물에 추겨놓은 뺨에 대리는 것 같다. 그러나 비가 몇시간이고 계속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왔다가는 날씨가 개이는 벤더스러운 서어머니 마음파도 같은 것이다.

All India Institute of Hygeine and Public Health

공중보건 학원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학교는 1932년 Rock Feller 재단의 도움을 받아 세워진 학교로서 1959년 W.H.O.로부터 국제학생 training center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 박사과정으로부터 석사과정을 포함한 이 학교는 불행히도 간호원을 위한 학위과정이 없어서 유감이였다. 10개월간의 보건간호과정은 Post graduate course로서 certificate만 주는 곳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나온 사람들은 보건간호원으로서 국제적인 자격을 갖게 되는 동시에 어느나라에 가서도 인정받는 보건간호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Course에 온 사람들은 Iran 1명, Mauxitius 1명, Iraq 1명, Malaysia 1명, Okinawa 1명, Nigeria 1명, Siera Leone 2명, Basatuland 1명, Korca 1명. 합하여 국제학생 15명 인도학생 23명 모두 38명이 한 class에서 공부하였다. 주어진 기회에 많은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기에 우선 아프리카 친구들과 먼저 사귀어 놓았다. 처음에는 피부색 같아서 오는 열등감에서인지 어찌나 거만했던지 좀 아니교웠으나 참고 친절하게 대하고 보니 나중에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주었다. 반면에 인도 친구들은 아주 보수적이며 불평 없이 일하는 착실한 학생들이다. 꼭 한국여성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 부끄러워한다던지 웃사탕을 어려워한다던지 하는 것은 동양에 여러나라가 비슷한것 같았다. 그중에도 Miss Magaret라고 부르는 인도 남부태생인 친구는 얼굴도 예쁘고 이지적이며 특히 새까만피부는 더욱 매력이 있었다. 이 친구가 끝까지 나의 친구가 되어주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으며 후에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1964년도 C.P.H.N. Course에 Gold medal을 이 친구가 차지했다고 한다. 비해 어느 Course를 막론하고 윌 등을 한 학생에게 금

메달을 주는 전통이 이 학교에는 있는 것이다.

손으로 밥을 먹는 인도인

점심만은 학교기숙사 식당에서 먹기로 하고 식당으로 가 보았다. 특특한 인도산 Curry 냄새가 나는 이 식당은 Cafeteria 식으로 되어 있었으며 쟁반을 집어다 음식을 풀어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음식마다 이상한 냄새가 나고 밥을 제외한 다른음식은 모두가 노랗기만하다. 어데든지 Curry powder 를 치는것 같다. 인도쌀은 유난히 작은알의 쌀과 우리나라 쌀알 크기에 2배나 더 되는 큰쌀 두 종류가 있는데 모두 다 쌀알만 대변 사방으로 흘으려지는 종류의 쌀이다. 식탁으로 돌아와보니 모두들 손으로 밥을 집어 먹기에 바쁘다. 처음보는 현상이라 신기해서 한참 손으로 먹는 인도사람들을 보고 있었다. 밥은 쟁반에 담고 반찬을 모두 밥에 쏟아 오른손으로 주물러서 비벼댄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알아 들것은 북부인도인과 남부인도인들은 풍속도 차이가 많으며 밥먹는 법도 다르다. 다같이 손으로 먹는데는 다찬가지이지만 인도남부인들은 음식을 손바닥 까지 다 둘려가며 밥을 집어 먹으며 북부 인도인은 다섯 손가락만 빙글빙글 둘려가며 밥을 둘둘둥글하게 둉치게 하여 약 20cm 가량거리를 두고 입에다 던져 넣는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먼저 넣는지 신기하여 나도 한번 손으로 먹어보고 싶기에 시험을 해 보았다. 20cm 온 커녕 10cm 거리를 두고 입에다 넣으려고 애써도 밥이 사방으로 흘으려지고 입가裳이에 밥알을 붙이는 등 주접을 떨어야겠기에 몇번 해보다가 그만두고 말았다. 그러나 이들 인도친구들은 내가 젖갈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도 신기한지 모두 차다 보고들 있다. 마침 보석상에 구경을 나가니까 Ivory (상아)로 만든 젖같이 있기에 기념으로 한벌 사다가 사용한 것이다. 서로 젖갈쓰는 법을 가르쳐 달리기에 젖갈사용법 강습을 약 5분간 했다. 그런데 옆에 조그마한 식탁을 떠로 놓고 앉아 밥을 먹는 인도친구가 있기에 이상하다 하고 자세히 보니 그 사람 식탁에는 다른 종류의 반찬으로 모두가 식률성인 것이다. 알고 보니 순수한 채식주의자였다. 인도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 Vegetarian 이라고 하며 우유를 제외한 어떤 동물성인것도 입에 대지 않는다는 특히 힌두교 신자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번잡한 산업도시 칼카타

인도에 도착한지 꼭 1개월만에 사내 구경을 하고 싶기에 거리로 나와 보았다. 이곳 칼카타에서는 Grand hotel 이 있는 Chorinjee road 와 Park street 가 가장 번화가로 우리나라의 명동같은 곳이다. Park

street 입구에는 마하모아 잔디의 동상이 있으며 그 위에는 비둘기가 한가히 날아 다니고 있다. 인구 600만인의 칼카타는 산업도시로서 현재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물려들어 인도정부에서도 풀치를 끊고 있다한다. 둘 퇴근시간이면 이런 main road에는 오가는 차가 어찌 많은지 이투 헤아릴 수도 없으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딪쳐 어떤때는 팔이 다 아플지경이다. 출퇴근시 우리나라 서울역앞과 같다며 과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시내는 깨끗한 편이고 고층건물도 많다.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문화생활을 하고 있으며 적어도 냉장고, 라디오, 전축등은 가지고 있었다. 칼카타 시내는 주택난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apartment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자기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으나 제집이 있는 사람은 백만장자인 부유층들 뿐이였다. 조그마한 소년이 달려오드니 “나니가와” “구루 구루가” 하면서 쫓아온다 맞은편 붉은 벽돌집을 가르치기에 무슨영문인지 들라 이 인도 소년을 보고 있으려니까 또 다시 무더라고 중얼거리며 전너편 붉은 벽돌집으로 가자는것이다. 소년을 보니 96이라고 써여진 번호표를 오른쪽 가슴에 달고 있고 한손에는 큰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착하게 생긴 소년이 하도 가기를 졸로기기에 따라 가보았다. New market 였다. 등양에서도 가장크다는 이 시장은 고기파

는곳 체소파는곳을 합하여 굉장히 넓은 시장안이였다. 기왕 들어온 바에 야 구경이나 하여 불 생각으로 천천히 걸어들어 갔다. Yes, Madam 을 사방에서 하며 길을 가로막는 인도상인들 때문에 빨리 걸지를 못하겠다. 무슨말인지 얼른들어 일본말 갖기도 하나 잘모르는 얘기를 자꾸 떠들어 텐다. 웃음이 나와 인도말이냐고 물으니 일본말을 한다고한다. 내 모습이 일본사람 같아서인지 나를 일본인으로 오해한 모양이다. 나는 Korea 에서 왔다고 일러주고 내말은 듯 알아들으니 제발 저티좀 가라고 해도 어찌나 쫓아오는지 나중에 뒤를 돌아다 보니 거의 10여명이나 넘게 장바구니를 든 무리들이 내 뒤를 빨리고 있지 않나가 쟁취하기도 하고 화도 났다. 무슨일로 나를 쫓아오느냐고 따졌드니 물건을 사거든 이바구니에 얹어놓고 가라는것이다. 시장안에서 짐을들어다 주는 짐꾼들이 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안사겠으니 따라와야 소용없다고 물려들 보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것은 웃감이나 다른 시장에서는 웃도 절입은 아낙네들을 볼 수 있겠으나 체소시장에 들어가니까 지나나니는 사람은 모두가 날자들 뿐이고 하인들 같이 보이는 초라한 사람들만 볼 수가 있었다. 인도풍속은 절값은집 부인들은 체소시장이나 고기깐 같은 곳에는 안가는 것이라고한다.

Caste 제도

인간은 평등이다 라고 부르짖는 오늘날 아직도 인도에는 이려한 Caste 제도가 있는것이다. 승려계급, 무사계급, 평민과 상업에 종사하는 계급, 그리고 노예계급 이들 4계급중에도 또 다시 세분되어 계급이 몇십 갈래로 갈라진다.

예를 들면 같은 노예계급에도 또 갈려 문직이 계급(팔완) 음식만 만드는계급 밥을 날라다주는 즉 식당에 waiter 같은 계급은 Vera 라고 부르며 그 다음은 바탁만 청소하는 Sweeper 제일 하층계급으로는 죽은 시체를 메고 가는 상여꾼 계급이라고 하는데 그외에도 도비라고하여 세탁만 뭉아서 세탁을 해다주는 층에 속한 사람도 다 이들 하류층에 속하는 무리들이라한다.

이렇게 바탁만 청소하는 사람은 절대로 책상이나 의자를 만질수 없으며 이런 사람들을 가르켜 untouchable people 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승려계급(Brahmin)의 그림자란 밟아도 이들 노예계급은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술풀애기도 있다. 물론 요사히 그런일은 없지만 아직도 좁은길을 지날때나 또는 종대를 오를때 나아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갈때 하도 딱해 질을 비켜주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먼저 지나기만 기다리고 한편구석에서 겹에 질린 열

줄로 서 있고는 한다. 아직도 옛부터 내려오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았다. 특히 이상한 것은 하인에게 명령을 할 때는 아무리 인자한 여인도 얼굴에 성난표정을 지으며 무뚝뚝하게 하인에게 말해야만 된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였다. 이런 하인들이 사는 곳은 주로 빈민촌이다. 이러한 곳을 방문 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 그 생활이란 어찌도 비참한지 보기에도 떡하다. 어떤집은 방하나에 식구 10여명이 있으며 방안은 맨 흙바닥에 칠명석 같은 것을 깔고 있기도 하며 신을 신은 사람은 한사람도 볼 수가 없었다. 방 한구석에는 나무판자로 침상을 만들어 놓은 집도 볼 수 있었다. 부인네들은 맨몸에 길이 6마로 된 Sari 단 걸치고 있으며 남자들은 거의가 상의는 입지 않은채 아랫도리만 가릴 수 있도록 보지기 같은 험겁을 들르고 있었다. 이런곳은 특별히 부엌시설이 따로없으며 우리나라로 말하면 빗틀 같은 곳에서 밥을 해먹는다. 이러한 가난한 가운데도 신은 꼭 모시고 있었으며 신을 위한 봉지 라든가 쟁반은 다 준비 되어있었다. 칼카타 시내에 Gas 공급이 되어 웬만한 가정에서는 다 Gas 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석탄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불쌍한 빈민들은 무엇으로 연료를 하는가 알아 보고 싶었다. 시의로 조금만 나가면 큰 고목나무 조는 집벽마다 통풀남작하게 소똥을 끌라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것이 마르면 떼어다가 부스러뜨려 연로로 사용하는데 화력이 좋고 경제적이라한다. 그래서인지 소가 등을 싸면 이들 아낙네들은 얼른 달려가 그것을 반죽하여 손으로 둥굴둥굴하게 비쳐 벽에다 던지면서 출비하게 불여놓는다.

인도 여인들의 화장

대부분의 인도 여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는다. 보통 복록후에 바르는 Powder를 얼굴에 문지르기도 하고 목에 허옇게 분칠을 한 인도여인을 많이 볼 수 있다. 머티는 걸게 길려 땀아내린 사람도 있고 머리를 우리나라 여인들 쪽지듯이 한 모양도 있으나 비녀는 끊지 않는다. 기혼자나 미혼자를 가릴 것 없이 머리를 땀아 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나라와 다른점이다. 머리는 매일 깊는 형편이며 특히 Bangal state에 사는 사람들을 Bangali라고 부른다 칼카타가 West Bangal에 있으므로 대부분의 시민이 이들 Bangali들이다. 이 치방 풍습은 다른 곳과 달리 기혼자는 반드시 가름마를 가운데로 타고 붉은 물감칠을 가름마에 바른다. 이것은 기혼자에 한해서만 바를 수 있는 득실 난 풍습이 있고 반드시 팔에다는 팔찌를 끼워야 한다. 인도여인들은 이마 한가운데 붉은 점을 찍는다. 이 풍속의 유래는 수천년 내려오는 종속으로 힌두교도들이 믿는 신은 수천개에 달한다. 그중 재물의 신이 있

는데 그 형상은 머티는 코끼리 형상이고 아래는 사람 형상을한 아주 이상한 모습의 신이다. 이들 인도여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득욕을 하고 Sari 하나만 걸치고 신앞에 나아가 빙고는 신앞에 놓은 붉은 물감을 자기 이마에 찍으므로서 그날 하루 재물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혹 다시 말하면 이 붉은 점은 재물신에게 기도 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 여성들은 하나의 미로 붉은 칠을 할뿐 실체로 기도를 드리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일기와 음식관계로 그런지 인도여인들은 얼굴이나 몸에 어찌나 털이 많은지 보기에도 어떤사람은 꼴찌 할 정도이다. 그래서 시집가는 아가씨들은 일부러 이 털을 빼야만 하는 한가지 수고가 더 있다고 한다.

빈부의 차가 많은 인도 사회

트타리 코럽에서 국제학생들을 초대한다기에 인도의 부자집을 구경하게 되였구나 생각하고 기대가 커졌다. 차가용으로 내가 있는 Guest house에 까지 페털터 온 것이였다. 가보니 과연으리 으리 으리 하였다. 우선 대문부터 문직이가 제복을 입고 서서 있었으며 현관문으로 들어가니 하인들이 나와 안내를한다. 거실에 들어가니 집주인 마나님이 정중하게 두손을 모우며 노마스데(안녕하십니까)를 한다. 나는 마침입고 간 웃도

한복이 라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안녕하십니까” 한국말로 우리한국식으로 인사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신기하고 호의의 눈으로 나의 행동 일거일동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자기네도 인도말을 사용하는 편이라고 우리말 못쓰라는 법 없겠기에 이 기회에 한국말도 한마디쯤 소개하여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본 것이다. 특별히 골동품에 취미가 있었는지 수백년 드온 기왓장이나 병이니 하는 것이 여기저기 장식되어 있었으며 그중에 일본 인형도 있었다. 혹시 한국 인형이 있나 살펴보니 없다. 도대체 한국물건이라고는 이집에 하나도 없었다. 하도 섭섭하여 내가 돌아가던 꽃 한국물건 조그마한 것이라도 보내 주워야겠다고 생각되었다. 방이 몇개인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으며 방마다 Air condition이 다 되어 있으며 부엌 설비도 너무 훌륭하다. 변소는 수세식 서양식으로되어 있고 목욕탕은 변소마다 있었다. 하인이 열명도 더 된다는 이 집을 지난번 내가 다녀온 그 빈민촌에다 비하니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부유층과 빈민층이 갈려져 있고 종류 계급에 속한 사람이 뜨한 도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인 사회제도를 바꾸어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화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을 유지하고 살아 나가는지를 소개도 하며 자국도 주고하나 원래 뿌리가 박힌 이러한 제도를 속한 시일에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원래 국민성이 착해서 그런지 아니면 뿐지에서 오는 것인지는 몰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내가 원래 태어 날 때부터 이런 운명을 갖고 나왔으니 할 수 없다. 하고 그래도 순종하고 지나는 것 같다. 가끔 공원에서 연설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나 듣는 사람은 불과 소수이다. 그런데 오사이 부찌 데모하는 모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호텔 종업원들 또는 회사종업원들 월급을 올려달라고 데모한다. 식량난으로 인한 블가를 조정하라는 브랑카드를 들고 데모하는 시민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도국민도 이제는 조금 눈이 뜨인 것이라고 한 인도인은 말한다.